

<대한민국 종교축제>

인사말씀

결실을 더욱 여물게 한 뜨거웠던 햇살도 이제 청명하고 드높은 가을하늘과 함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명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며 해마다 이 맘 때 개최하는 대한민국 종교축제가 올해로 열 여덟 번째의 인연을 맺게 되어 뜻 깊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는 아픔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있기에, 이번 축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역시 간절합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한없이 보듬어주고 싶은 모든 종교인들의 뜻을 모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축제의 주제가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점도 우리사회 일각의 침울한 분위기를 희망의 메시지로 달래고 국민에게는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것임을 특별히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교인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면 즐겁고 행복한 희망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사다난의 일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 역사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이젠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깊은 경제의 주름을 말끔히 펴주는

민생정치가 하루속히 펼쳐져 활기찬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도 되살려 나가기
를 바랍니다.

종교지도자협의회가 해마다 이러한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취지도 종교
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일환입니다. 특히 당면
한 국민적 과제를 어루만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각계각층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이면서도 오랜 기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
없는 공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주관하는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는 앞으로도 종교 간 대화와 공존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마주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적 책무를 성심성의로 살피고, 국민들의 정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문화축제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여러 종교
의 숨결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즐거움이 되
고, 밝은 미래로 승화되는 값진 시간이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종교문화축제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더 큰 문화축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넓고 푸른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의 행복을 가득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9.13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자승